

# 강원도 건설수주액 전년보다 2배 꺾충

올해 총 5,242억원 집계  
지난해 비해 2,683억 늘어  
민간 중심 공사물량 증가

도내 건설수주액이 늘어나고 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올 4월 강원도 건설수주액은 총 5,242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2,559억원보다 2,683억원이 늘어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수주액 증가는 민간을 중심으로 한 공사물량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4월 강원도 민간부문 수주액은 4,942억원으로 전체의 94.3%를 차지했다. 지난해 4월 민간부문 수주액 2,149억원 대비 2,793억원(130.0%)이나 늘었다.

민간부문 건설수주액 증가로 올해 전체 수주물량도 반등하고 있다.

올해 1분기 도내 건설수주액은 전년 같은 기간 6,840억원보다 2.9% 줄어든 6,640억원에 그쳤다. 특히 공

공부문 수주액이 지난해 1분기 4,310억원에서 올해 1분기 1,440억원으로 2,870억원이나 감소했다.

이처럼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수주액이 증가하고 있지만 향후 건설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높지 않다.

올해 1분기를 포함해 향후에도 공공부문 건설물량 공급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도내 주요 공공기관의 연간 발주 계획 물량은 3조3,775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400억원 줄어들 것으로 나왔다. 또 2018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기반·시설공사의 마무리 이후 대형 프로젝트가 부족하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물량이 상반기에 조기 집행으로 발주되고 있어 하반기로 갈수록 건설업체들의 수주 가뭄이 불가피하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민간이 발주하는 기계설치, 숙박시설, 재개발주택 등에서 수주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다만 공공발주가 늘어나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건설경기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위윤기자 faw4939@

## 건설업체 중소기업 비중 99% 넘어서

전체 건설업체 중 중소기업사 비중이 99%를 넘어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중소건설업 시장 구조 분석’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건설업체 중 중소기업 비중은 99.7%로 나왔다.

업종별로는 종합건설업이 98.4%, 전문건설업은 99.9%였다. 2015년 기준 종합건설업 업체는 9,900여개, 전문건설업은 5만8,000여개로 조사됐다. 하지만 중소기업의 매출액 비중은 전체의 55.1%로 절반을 조금 웃돌았다.

종합건설업 중소기업이 32.4%, 전문건설업이 93.9%로 집계됐다. 종합건설업 매출은 연 207조원, 전문건설업은 121조원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인력비중도 전체의 83.3%였다.

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건설업계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위윤기자